

# 광주 수입차 점유율 7.05%...3년새 두배 꺾춤

## 국산차와 가격차 줄어...올 1~4월 1020대 BMW·아우디·폭스바겐·벤츠·토요타 順

광주지역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이 3년 새 두 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BMW와 폭스바겐은 광주의 수입차 시장을 이끌었다. 소비자 취향 다양화 및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 차이가 좁아지면서 당분간 수입차의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광주지역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7.05%로, 지난 2010년 3.6%에 그

쳤던 것이 2011년 4.2%, 2012년 6.36%를 거쳐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와 현대차가 30% 후반대의 점유율로 '얼치락뒤치락' 하는 사이, 다른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을 수입차가 빼앗아 간 것이다.

광주지역 수입차 점유율은 전국 평균인 9.03%에는 2%p 가량 낮았지만,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울산의 수입차 점유율이 3.41%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았다.

수입차의 시장 점유가 확대되면서 광주의 선호 수입차 브랜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BMW와 폭스바겐을 선호했고, 판매대수는 적지만 혼다와 닛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기를 끌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광주지역의 수입차 판매량은 1020대로, 이 가운데 BMW가 228대(22.35%)를 팔아 1위를 차지했고, 아우디 166대(16.31%), 폭스바겐 161대(15.76%), 메르세데스-벤츠 113대(11.06%)가 그 뒤를 이었다. 4대 수입차 브랜드는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65.5%를 차지하며 '빅 4'를 형성했다. 토요타는 6.20%의 점유율로 '빅 4'의 뒤를 차지했다.

이 기간 국내 수입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이 BMW(23.80%), 메르세데스-벤츠(16.13%), 폭스바겐(15.03%), 아우디(12.68%) 순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대명사격인 메르세데스-벤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대신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아우디의 광주지역 점유율은 경남(23.98%), 인천(17.16%)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실제 매장 판매량은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경남 지역에서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점유율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타와 닛산, 혼다가 약진했다. 토요타는 광역시 가운데 부산(3.51%), 인천(2.27%), 대전(4.06%)보다 높은 6% 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닛산은 점유율 4.00%를 차지했는데, 전국에서 4% 대의 점유율을 기록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혼다도 5.25%로, 전국에서 경기(5.28%)에 이어 두 번째였다.

광주지역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광주는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데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성능을 갖춘 소형 수입차의 판매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금고에 숨겨 놓기 쉬운 골드바와 5만원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35조5299억원어치로 올해 들어 4개월간 3조7634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작년 동기 1조 9265억원의 거의 배 수준이다. 2011년 1~4월 증가 규모도 1조 6980억원에 불과했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만큼 2010년 1~4월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체 화폐 발행액의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년 전 49.2%에서 올해 4월 65.9%로 급상승했다. 한은도 증가 폭은 크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관종별 물량 요청을 받아 공급하는 만큼 정확한 이유는 알



## 새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에 5만원권·골드바 수요 폭발

기 어렵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지하경제의 표본이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는 금 거래도 증가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바 등 금 실물은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운데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도 미비한 상태여서 부유층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올해 3월부터 골드바 판매를 개시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PB센터에서 고객들의 골드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해 판매를 시작했다"며 "월 200kg 정도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골드바를 판매해온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월간 판매량은 500kg 정도"라면서 "작년 10월을 전후로 국제 금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판매가 대거 증가한 만큼 작년 동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증가"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올해 3월부터 골드바 판매를 개시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PB센터에서 고객들의 골드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해 판매를 시작했다"며 "월 200kg 정도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골드바를 판매해온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월간 판매량은 500kg 정도"라면서 "작년 10월을 전후로 국제 금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판매가 대거 증가한 만큼 작년 동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증가"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 광기술원 차기 원장 광주시·산자부 이견 3명 응모...14일 선임

한국광기술원 원장 인선에 대해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가 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는 지지 인사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광주시와 광산업계에 따르면 김선호 한국광기술원 제4대 원장의 임기(3년)가 다다음 종료되면서 최근 한국광기술원이 후임원장을 공모한 결과, 김선호 현 원장과 이병택 전남대 교수, 한택상 광기술원 수석연구원장 등 3명이 응모했다. 김현일 의류시험연구원장은 원장 응모를 철회했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일 3명을 상대로 면접을 한 뒤 1~2순위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원장으로 임명한다.

광주시와 광산업계는 광주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가 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주시와 산자부가 2001년 국비와 시비를 들여 설립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디자인센터와 영국골드스미스대학이 주최한 '2013 크로스 컬추럴 디자인프로젝트' 워크숍이 6일 제주에서 진행된 가운데 영국 교수진과 한국 대학생들이 디자인 개념을 토론하고 있다. <광주디자인센터 제공>

## 한·영 교류 글로벌 디자이너 육성 본격화

### 광주디자인센터, 제주서 '2013 크로스 컬추럴 프로젝트' 런칭 워크숍

한국과 영국의 디자인 교류를 통한 글로벌 디자이너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전국 회원 24명과 영국왕립예술학교 출신의 산업디자인 권위자인 마이클 윌러 교수 등 디자인·건축분야 교

수 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크로스 컬추럴 디자인프로젝트'를 위한 런칭 워크숍을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코리아디자인멤버십사업(Korea Design Membership, 이하 KDM)의 일환인 이 프로젝트는 지역 디자인 인재를 글로벌 디자이너로 육

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KDM 회원들은 크로스컬추럴 디자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토론, 한국 문화에 대한 디자인 모티브 발견, 팀별 디자인프로젝트 컨셉트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프로젝트는 앞으로 5개월간 워크숍을 비롯, 디자인 개발과 런칭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참가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워크숍을 마친 KDM 회원들은 골드스미스 교수진 등과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오는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개발된 디자인은 오는 9월19일부터 열리는 '2013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행사의 '텐트 런던(TENT LONDON)'에 전시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컨셉트로 디자인을 개발, 지역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LH 나주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 6만6000㎡, 3.3㎡당 125만원...24일 신청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는 C5블럭 85㎡초과 대형평형으로 계획된 토지로, 중앙호수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전면에는 초·중·고교 하나를 포함한 '스쿨컴플렉스(2014년 3월 동시 개교)'가 조성돼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대형평형 수요위축 등을 반영, 평형변경하는 B13블럭은 60~85㎡이하, 세대수 920세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조건부로 공급한다. 분양면적은 6만6000㎡이며 분양가격은 251억 원으로 3.3㎡당 12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올해 말까지 분양에 나설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 등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어 분양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이번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3개월 이내 개발 및 실제계획변경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 납부한 토지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자격은 건설실적 및 지역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이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6월24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061-330-5523).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신제품 가격쿠폰이벤트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산프리모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평일 (상대중화점(미포)) 25,000원

토/일/공휴일 (상대중화점(미포)) 29,000원

**YONAMIA** Fusion Family Restaurant **유스퀘어점**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10,800

베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 10,800

베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와 구운 마늘 필라프 14,000

매콤한 요남자 밀라프 7,9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10,800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